

한국·일본 전통건축공간의 지향성

The Directivity of Traditional Architectural Space in Korean and Japanese

김 동 영*
Kim, Dong-Young

Abstract

As a circumstantial-existence character (the human character who takes action after grasping circumstances and fears things with reason) the Japanese were more interested in the active doctrines of Wang Yang-ming than other speculative studies. All of people were inhumanly incorporated into the rigorous class system under pressure in the samurai society. In the atmosphere of the society a natural phenomenon was understood as the ksana of change, and instead of the whole, the part was mainly described with emphasis on the reality. Therefore nature came near to the man after being reduced and then was symbolized in the interior space. Also the classification of spaces, that is to say, the settlement of borders by the social position was shown in the great interior space like a labyrinth. As a self-existence character(the human style who carves out for and does not have a regard other's feeling), however, the Korean were much influenced by the Taoist idea as they tried to be similar to nature in nature itself. Therefore the idea of Asaniskrota was in their origin. There was a tendency for space to be extended toward the outdoor in Korea, since the Korean people who are speculative and like to be natural tried to be close to nature. Therefore the division of spaces according to class and sexuality and the settlement of borders were already shown in outside by Che-Na-Num(Divided-Mass:Koren's own style). These are closely related with that houses were built after a village settle down in Korea while built before a village settle down in Japan. Architectural space consists of the interior and the exterior. The layout and form of architectural space has a great variety of characters by region and culture. In other words, it can be understood which has a priority between the interior and the exterior in developing the layout and the form of architectural space. Belonging to the culture area of Chinese characters with Korea, Japan has maintained its own identity. It has an identity in the layout and form of architectural space as well. Therefore, the architecture and architectural theories of the two countri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with priority given to the traditional architecture, also the backgrounds of architecture and architectural theories of two countries were examined in this study. This study shows that each country has different characters in how to introduce nature, how to expand space and how to compose windows, including the view of nature and the cult of space. As a result, the space in Korean architecture has relatively the exterior-oriented character but in Japan architecture spatial character is interior-oriented. The interior-oriented character can be relevant to the word 'reduction' and the exterior-oriented character to 'extension' after all. Also it can be thought that each character has a great relation with climate and idea of people in power.

Keywords : Korea, Japan, Traditional architecture, nature, interior-oriented, exterior-oriented, boundary, self-existence, circumstantial-existence

주요어 : 한국, 일본, 전통건축, 자연, 안, 밖, 경계, 가외, 자존

I. 서론

기능이나 성질이 각기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문화가 있지만 그것을 자세히 뜯어보면 거기에는 일정한 의식의 지향성과 패러다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

동일한 기능의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그 구성방법과 형태는 나라에 따라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현상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같이 동일한 문화권의 예술도 각 나라에 따

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생활배경에서 오는 미의식의 차이 때문이라고 한다²⁾.

한국과 일본도 중국문화권의 기본적 미학사상을 공유하면서 각기 그 나라의 여러 상황에 맞게 발전시켜왔다. 그 중에서도 자연친화는 양국의 미학사상의 기본 주제였다. 그래서 본 연구는 양국 전통건축 공간지향성의 한 단면을 밝혀 보기 위해, 양국의 자연에 대한 기본적 미의식 사상에 의한 전통공간과의 상호관련성을 파악하여, 내부

* 정희원,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공학박사

1) 이어령, 축소지향의 일본인, 갑인출판사, 1983, p. 48.

2) 趙要翰, 韓國美의 照明, 열화당, 1999, p.114.

공간과 외부공간의 구성체계를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II. 미학사상

양국은 유교와 불교, 도교를 중심으로 전통사상을 출발 하였으나, 일본은 신도(神道)라는 독자사상을 포함시켜 발전하는 등 나름의 독자문화사상을 구축하게 되지만, 미의식의 근간에는 자연동화 사상이라는 큰 틀이 있었으며, 항상 자연과의 관계에서 인생을 배우고 미를 표현하려 하였다. 그리고, “일본인의 사상은 한 가지 일, 눈앞의 일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이상의 보편지향은 없으며, 조선 주자학의 사변적 경향은 쉽게 공리공론에 빠진다”³⁾고 한다.

풍류의 해석에 있어서도 최치원과 바쇼(芭蕉:중세일본 풍류시인)는 자연에 몰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풍류를 ‘자연 그대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까지는 한일 공통이었으나, ‘자연’의 내용, 즉 자연을 표현하는 방법이 서로 달랐다⁴⁾고 한다. 아울러 “자연과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에는 자연을 끌어들이는 방식과 자연 속으로 나아가는 적극적 방식도 있다.”⁵⁾고 한다. 한편, 이어령은 “한국인은 스스로 있는 상태의 자연을 사랑하는 반면 일본인은 사람을 위한 자연-인위적인 자연으로 만들 때 그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자연관은 자연을 향해 나아가는 확대지향성을 지니고 있고, 일본은 그와는 달리 자연을 자기 곁으로 끌어들이는 축소지향적”이라 하였다.

일본미에 대하여 요시무라(吉村)⁷⁾는, “일본미의 여백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술의 축소화를 이야기하여야만 하는데, 최소로 필요한 것만 남기고, 그 나머지는 공백으로 두며, 이것이 응축성의 궁극이다. 그리고 응축된 미를 더욱 응축시키며 정진함에 있어서의 각고의 노력하는데, 그것은 최상의 미를 찾으려는 싸움이며, 쓸데없는 것을 제거하고 응축의 결과 알몸의 본질이 될 수록 존재의 움직임(활동)은 강하게 된다”고 논하였다.

또한, 일본의 화도(花道)는 들에 피어있는 꽃을 그대로 두고 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꺾어 일단 죽여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창출시킨다. 일본인은 자연과 일체라 하여도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연의 에센스를 응축하여 낸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는 일본인은 자연을, 사물에 대하여, 그것을 가공해가는 변형해 가는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그림 1> 즉, “축소지향이란 이미 만들어진 문화가 아니라 문화를 만들어가는 상상력의 작용을 의미한다.”⁸⁾

그리고 “일본의 미학을 말할 때 수목화, 다도, 문인화



그림 1. 일본 꽃꽂이 사례



그림 2. 소수서원 취한대 (임석재, 한국전통건축과 동양사상, 북하우스, 2005, p.237)

등에 갖든 정신주의적 측면에서 ‘인상성’, ‘상징성’이 키워드로 이야기되는데, 그러한 순수기하학적 추상형태는 카레산스이(枯山水)정원⁹⁾ 조성방식과 맥락을 같이하는데, 이 카레산스이 정원은 고지 이동에 따라 다양한 공간이 미지를 갖도록 정교하게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산지사찰들은 지형지세에 따라 앉혀지고 조성된 건축물로 향한 진입과 통과로 기대감과 함께 자연스러운 이동을 유도한다.¹⁰⁾ 본래 “일본 미의식에서는 예로부터 영원한 집권자의 가족의 번영과 정복의 기원에서 영원이 유래하며, 이 영원은 불멸, 변화의 두가지 시각 있는데, 결국 중세적 영원의 표현은 無常의 디자인(pattern of change)으로 표출된다. 고대적 영원의 표현은 심볼을 설치하는 형으로 행하여져 왔다. 그래서 영원은 변화의 패턴으로 여겨져 찰나적으로 변하는 자연의 미와 균형이 구해져야만 했다.”¹¹⁾ 결국, 영원의 존재에 대한 의혹과 불안 그리고 절대적인 물상의 부정이 일본인의 자연관이 고 미학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은 “건축을 변화하는 것으로, 변화 그 자체를, 건축이나 공간에서 찾으려 하였다. 완전하고, 안정되고, 균제되고 정적이고 영속되고 영원한 것에 반해, 불안정하고 불완전하고 동적이고 일시적인 공간을 구했던 것이다. 계절과 사물에 대응하는,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공간을 창출하려하였다.”¹²⁾

그러나 “한국인은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자연을 단지 관조하는 자연으로 보는 관념을 가졌다. 바꾸어 말하면, 일본인은 미묘한 자연의 변화가 만들어 낸 무상감과 그것에 근거한 자연에의 감각을 갖고 있다면, 한국인은 단조로운 자연이 만들어낸 무위(無爲)성과 그것에 근거한 있

3) 김용운, 전게서, p.182.

4) 김용운, 한국인과 일본인-정착과 정복, 한길사, 1994, p.241.

5) 임석재, 한국전통건축과 동양사상, 북하우스, 2005, p.283.

6) 이어령, 전게서, p.144.

7) 吉村貞司, 日本美の特質, 鹿島出版會, 1991p.182-193.

8) 이어령, 전게서, p.72

9) 그림 16 참조

10) 권영길, 공간디자인 16강, 도서출판 국제, 2001, p.167

11) 伊藤ていじ, 日本デザイン, 鹿島出版會, 1988, p.53-58

12) 田中 光, 日本の風土と建築, 建築雑誌, 일본건축학회, 1977.01, p. 12-14

는 그대로의 자연관을 갖고 있는 것이다.”¹³⁾ <그림 2>
 “한국미의 진수는 잔재주를 부리지 않고 마음을 비우는 제작의 태도에 있다.”¹⁴⁾

한국미에 대해 조요한¹⁵⁾은, “자연과 인간이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라고 보았다고 규정하고, 한국예술의 특징을 우리가 ‘멋’ 또는 ‘무기교의 기교’ 또는 ‘소박미’라고 할 때, 그것은 인위적인 꾸밈이 없는 자연과의 합일을 말하는데 이것이 곧 도가적인 것과 일치한다”고 하였다.

도가는 자연과 관련된 가르침을 가장 체계적이고 교훈적인 사상으로 정리한 것으로, 자연의 물질적 상태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자연에 순응함으로써 자연 속에서 몸과 정신을 잘 보호하라는 가르침을 제시하였다.

“도가는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교훈, 혹은 자연이 작동하는 기본원리가 무위라는 개념으로 설명되며, 이때의 무위는 ‘무위이부불위’(無爲以無不爲)의 개념을 갖는다. ‘무위이부불위’란 “하는 것이 없되 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라는 의미이다. ‘무위이부불위’를 좀더 자세히 풀어쓰면 “불필요한 인공적 행위는 하지 않으면서 꼭 필요한 것은 모두 한다” 라는 의미이다. 매우 간결하면서도 역설적 긴장감으로 자연의 교훈을 가르치는 구절이다.”¹⁶⁾ 결국 “한국인에게는 자연 속에 자기를 맡기는 한국인의 ‘감정이입’의 자세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¹⁷⁾

그리고, 한국적인 미를 이희승¹⁸⁾은 ‘멋’으로 표현하고, 그는 “멋이야말로 사물의 실용성을 떠나, 통일을 깨고 균제를 벗어나는 한국미의 특색”이라 하였다. 또한, 최순우¹⁹⁾는 우리미를 “순리(順理)의 아름다움, 간박(簡朴)의 단순한 아름다움, 기교를 초월한 방심(放心)의 아름다움, 고요와 익살의 아름다움, 담담한 색감의 해화미(諧和美)로 보고 “세부보다는 전체적 인상, 냉철보다는 인간적 온화, 추상보다는 자연적 관조를 존중하는 한국적 자연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한 한국과 일본의 미의식에 대한 배경을 김용운²⁰⁾이 양국의 국민성을 정의한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의 민중성을 가외(可畏)로, 한국을 자존(自存)형으로 규정하고, 가외란 위를 두려워할 줄 알고(畏), 분수를 지키고 삼가면(謹), 살아가는 지혜(賢)를 말하며, ‘賢·恐·畏’으로 표기되며, 일본적 현자의 표현이라 한다. 한편 ‘자존’이란 주위의 필요이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변 상황을 스스로 개척해 가는 정신”이라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민중은 상대적으로 작은 행복과 만족으로 자기 자신을 맞출 줄 알고 한국은 보다 큰 쪽으로 지향하는지 모른다.” ‘가외’의 일본인은 대자연에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한국에서는 경치가 조금이라도 좋은 곳에는 정자를 세우고 그 곳에서 경치를 바라보며 자연에 대한 생각을 솔직하게 노래하고 읊었다. 자존과 가외의 차이가 이런 곳까지 반영되어 나타난다.”²¹⁾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자연의 변화를 찾아내어 묘사하고, 한국은 그때그때의 자연을 있는 그대로 맞이하고 기다리는 사상을 표출한 것인 지도 모른다.

III. 건축적 표현

1. 공간확장방식

일본의 공간은 외부로부터 내부로의 확장이 보이고 한국은 내부로부터 외부의 확장이 상대적으로 눈에 띈다.

한국은 채나눔이라는 방식으로 내부(건물)와 외부(마당)의 구성으로 확장해 갔으며, 공간을 확장해 가는 패턴에서, 닫혀진 내부공간의 중심에서 외부공간으로 열리는 방식을 볼 수 있다<그림 3>. 즉, 자연을 향해 다가가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의 하양양식과 유사한 고타네(小屋根)양식과 모코시(裳階:당이나 탑에의 처마아래 외벽 바깥으로 1칸씩 붙여진 처마형태의 구조물)나 히사시(庇) 등을 이용하여 점차적으로 외부공간을 내부공간화 해간다.<그림 4, 5, 6> 마당도 마당간도 안방을 덮고 있는 동일한 지붕아래 구성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갓쇼즈쿠리(合掌造)²²⁾와 같은 대규모의 내부공간의 민가형식도 나타났다.<그림 7>

이러한 현상에 대해, 카또(加藤)²³⁾는 “일본은 건물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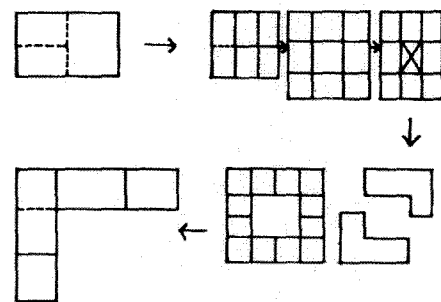


그림 3. 한국의 공간확장 방식
 (김광현, 韓國の住宅, 丸善, 1991, p.76)

21) 김용운, 전계서, p.108

22) 東 孝光, 日本人の建築空間, 彰國社, 1985, pp. 101-102: 미노(美濃)지방의 골짜기에서 시작되어, 여러 곳으로 퍼져나간 일본의 민가군의 양식을 말한다. 이러한 대규모 민가가 출현한 이유는 산 또는 산골짜기 사이, 이웃이 드문 낮은 생산력 때문이었다. 산일 양봉에 의한 조금의 현금 수입이야말로 유일한 생계수단이 되어, 더구나 경작지가 적어 분가가 불가능한 때문에 자위책이 그것에 겹쳐 대가족 주거로 되었다고 지적되고 있다.

면적은 중규모라도 80평, 가족 구성원은 평균 20인에서 25인 이었으며 대부분은 1층 또는 중2층에 살았다.

23) 加藤周一 저, 김진만 역 : 일본문화의 숨어 있는 형, 도서출판 소화, 1995, p. 29.

13) 김광현, 韓國の住宅, 丸善, 1991, p.7.

14) 趙要翰, 전계서, p.341

15) 趙要翰, 전계서, p.197

16) 임석재, 전계서, p.239

17) 趙要翰, 전계서, p.307

18) 趙要翰, 전계서, p.18-20

19) 趙要翰, 전계서, p.49-54

20) 김용운, 전계서, p.143

체의 공간을 생각하고, 그 공간을 세분하여 방을 만든 것이 아니라 방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방을 다 만들고 나니 처음에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전체의 모양이 되었다고 하며, 그것이 결국 중축의 정신"이라 하였다.

또한, 요시무라²⁴⁾는 서양건축과 일본건축의 비교에서, "일본 건축을 최초의 계획이 없이 집에 생명이라도 갖고 있듯이 자꾸 증축되어, 평면적으로 넓혀져 가는 특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김용운²⁵⁾은 "한국의 공간관은 먼저 통일된 전체상이 있고, 각 부분은 전체상이 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을 하나, 한편 일본은 부분에서 시작하여 그 하나하나를 중요시하고, 부분을 합하여 전체를 만든다고 하며, 일본의 공간은 어디가 중심인지 알 수 없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이어 나간 것 같다"고 하였다. 이러한 것의 배경에 있어 한국은 마을 단위의 공간이 먼저 설정되고, 각 개별 주호가 결정된 반면, 일본은 각 주호가 먼저 설정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내부공간

일본의 고대 목조건축은 상위-하위와 내부-외부의 서열성을 확실하게 나타낸 「모야(身舎)-히사시(庇)」의 공간을 탄생시켜, 이것을 기본으로 발전하여 가게 된다. 더욱이 공간이 확대될 때, 「모야(身舎)-히사시(庇)」의 성격을 답습하여, "「모야(身舎)-히사시(庇)-마고히사시(孫庇)」라는 공간형식을 창출하게 된다."²⁶⁾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부공간이 확대되고 공간의 깊이가 깊어지게 된다<그림 8>. 그리고 "서열성이 강한 일본의 공간은, 남북, 동서의 두 축을 이용하여, 공과 私, 공적인 공간은 다시 신분의 상하에 따른 공간으로 구획하였다. 그리고 공사의 공간경계에는 문을 설치하고 공적인 공간(대면공간)에서는 공간의 구획을 위한 고정문은 원래 없다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설치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에도(江戸)초기 경장연간(慶長年間)에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된다. 그 대신 동서방향으로 격식공간을 확보하면서 주인의 공간(上段の間, 그림 9)이 건물 용마루 중심을 지나 점점 사선방향으로 안쪽의 깊숙한 곳으로 옮겨지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이렇게 대면공간을 L자형으로 함으로써 남북축도 흡수하게 된다. 이러한 축조과정을 통해 내부공간은 마치 미로를 찾듯이 복잡한 구성의 양상을 띠게 된다. 이것을 소위 간코우(雁行)디자인"이라고 한다<그림 8>.²⁷⁾ 또한 권영걸²⁸⁾은 "일본은 제한된 공간 안에서의 거리개념으로 요소들을 재단함으로써 공간을 상대적으로 파악하였고 세계의 영원성의 불신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이러한 일본의 공간개념을 잘 표현한 것으로, 오후(奥)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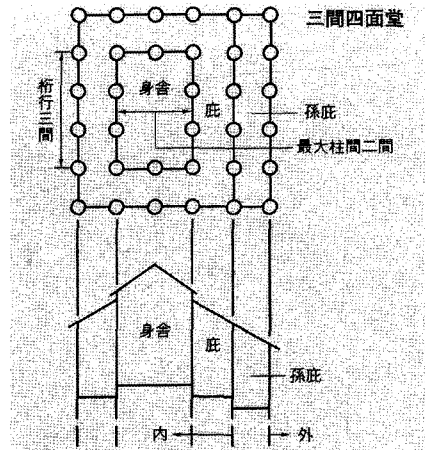


그림 4. 일본의 공간확장 방식(모야(身舎)-히사시(庇)-마고히사시(孫庇) 관계 中川武, 日本の家, TOTO출판 2003,p.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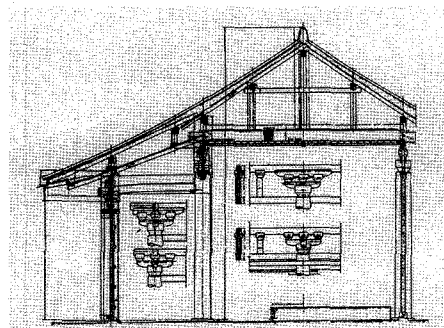


그림 5. 일본의 고아네(小屋根)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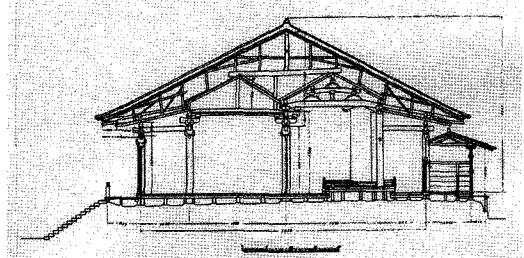


그림 6. 일본의 외부공간의 내부공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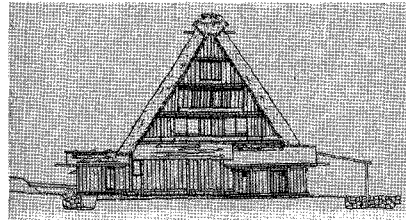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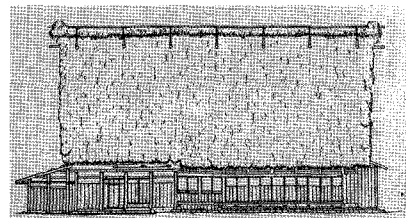


그림 7. 갓쇼즈쿠리(合掌造)

24) 吉村貞司, 전게서, p.239.
 25) 김용운, 전게서, pp.228-229
 26) 中川武, 日本の家, TOTO출판 2003, p.51
 27) 小野瀬順, 日本のかたち線起 彰國社, 1998, p.89-106
 28) 권영걸, 전게서, p.178.

것인데, 이것이 비밀스럽고 가리어져 있다는 의미이자,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항상 주변에 상대적인 공간개념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였다<그림 10, 11>. 더욱이, 일본은 건물의 출입구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용마루와 동일 방향에 설치되어 공간의 깊이는 더욱 깊어지게 된다<그림 12>. 이러한 일본의 내부공간에 대하여 이어령²⁹⁾은 “좁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안정되고 토끼장 같은 좁은 공간이기에 오히려 정신을 집중하여 넓은 우주를 볼 수 있는 선의 깨우침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김용운³⁰⁾은 일본인의 공간관을 겨우 두 평 남짓한 찻시즈(茶室)에서 무한의 천지자연이 응축되고 구체화된다”고 하였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러한 좁은 유니트의 일본의 내부공간은 점차 수적으로 증축되어 그 규모가 확장되게 된다. 그리고 내부공간과 내부공간사이의 외부공간과 내부공간 가장자리 등의 외부공간은 점점 내부공간으로 진화된다. 그렇게 되어 자연히 그것을 덮는 지붕도 크게 되고 공간의 깊이도 깊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일본전통의 내부공간을 특징 지워주게 되며, 일본의 건축미로 승화되게까지 된다.

이러한 내부공간에로의 진화는 공간미학의 근거가 된다. 타니자키³¹⁾는 일본 전통건축의 미를 내부공간의 분위기로 설명하며, 이를 음예예찬(陰翳禮讚)이라 하였다. 그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항상 실제생활에서 발달하는 것으로 부득이 하게 어두운 방에 살게 된 우리의 선조는 어느덧 그늘 속에서 미를 발견하고 마침내는 미의 목적에 따랐듯이 그늘을 이용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이는 다다미방의 미는 음예 즉, 그림자, 또는 어두움의 정도(濃淡)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그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술하였다. 그리고 나이또(内藤 昌)³²⁾는 “미를 전하는 것은 항상 생활의 실제에서 발달하는 것으로, 어두운 방에 살아오게 된 선조는 언제부턴가 음예 속에서 미를 발견하고, 나아가서는 미의 목적에 음예를 이용하였다. 사실 일본 다다미방의 미는 완전히 음예의 농담에 의해 생겨나며, 그 이외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였다. 또한, 일본의 창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시선이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것보다는 가까운 곳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형성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차경과 축경을 이용하게 되면 필연적인 결과라 하겠는데, 특히 유키미쇼지(雲見障子: 그림 13)라는 일본 특유의 창호형식을 통하여 바깥의 자연을 더욱 내부로 끌어들이는 일본의 공간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작은 정원에 면하면서 좁은 정원의 작은 식목과 입석 등에 표현된 상징적 소우주를 집중적으로 더욱이 인간의 눈에 부드럽게

친화적으로 방 내부에 끌어들이기 위하여 필요없는 것은 가능한 보이지 않도록 하고, 그를 위해 밖의 정원이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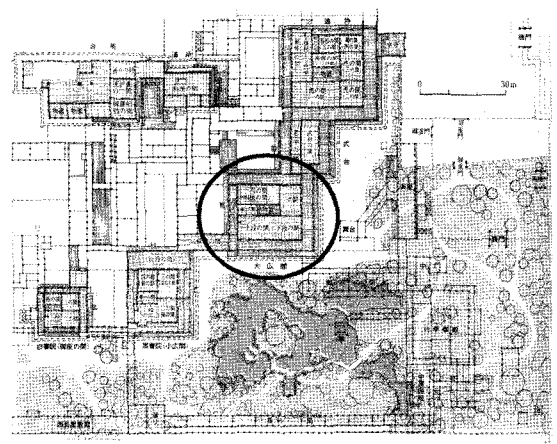


그림 8. 니조조 니노마루(二條城二の丸)御殿배치도

(본 그림은 추정 복원도이다. 그리고 위쪽이 동, 좌가 북으로 되어 있다. 우측 상부로부터 시선방향으로 좌측 아래로 遠待는 대기공간, 원으로 표시된 大廣間은 공식 알현 공간, 黒書院, 白書院과 정원으로 배치되어 있다. 白書院은 將軍의 거실에 해당한다. 전체의 배치도 동에서 서로 북쪽으로 갈에 따라 시적인 공간에 향하게 된다. 즉,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小野瀬順, 『日本のかたち縁起』 彰國社, 1998, p.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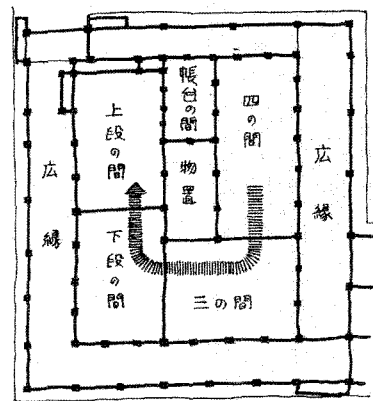


그림 9. 니조조 니노마루 다이히로마 (二條城二の丸第廣間 : 그림 8의 원으로 표시된 부분, 西山そぞう, 『住まい古今學』 彰國社, 1993, p.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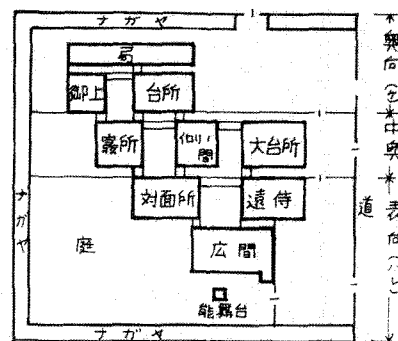


그림 10. 무시주택의 공간구성도 (西山そぞう, 『住まい古今學』 彰國社, 1993, p.51)

29) 이어령, 전게서, p.177.

30) 김용운, 전게서, p.105.

31) 谷崎潤一郎 저, 김지전 옮김: 음예공간예찬, 발언, 1989, p.49

32) 内藤 昌, 『日本建築學の行方』, 建築雑誌, 일본건축학회, 1987.10, p. 58.

부에 비해 극단적으로 너무 밝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선은 차단하면서 알맞은 빛을 끌어 들인다. 이것이 유기 미소지의 공간적 성격이다.”³³⁾

한편, 우리 건축의 창에서 형성되는 시선은 가까이 내려다 보는 것보다는 마을 앞이나 안산을 보게 되어 있다. 이는 마을과 각 주거의 좌향을 보고 주변의 자연적 지형지세에 따라 그 주거형태가 결정되었기 때문이다<그림 14, 15>. 또한, 한국에서 어떤 패턴과 겹쳐 경관을 바라보는 개념은 아예 없으며, 어떠한 인공적인 조영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조망한다. 한국은 담장과 벽이 낮아 정이나 누 등에서 주위의 자연경관을 유연히 바라볼 수 있게 되어있어 차경을 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³⁴⁾

결국, 일본의 전통건축은 외부의 공간을 자꾸 내부공간화, 즉 인간 결으로 끌어들이는다. 그러한 방식에 의해 외부의 공간을 내부에 모두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요소들이 응축될 수밖에 없으며, 상징적인 것이 많아 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결과를 자연스럽게 초래하게 된다. 이에 비해 한국은 중국계 목조건축의 기본인 건물정면이 도리방향의 벽체중앙에 위치하여 동선의 깊이는 짧고 좌우로 길게 퍼지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공간의 깊이가 얕으며, 일본과 같이 지붕이 커서 길고 크게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처마도 깊지 않다, 그리고 일본은 동서, 남북의 축을 동시에 이용하여 만들어지게 되는 큰 실내공간 안에 가장 깊고 아늑한 곳에는 가장 중요한 주인공 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공간구성을 전개한 반면, 한국은 채 나눔에 의해 외부공간에서 계급과 성별에 공간의 구분과 확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공간의 깊이는 일본처럼 미로를 연상시키는 듯한 깊은 내부공간은 구성되지 않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공간의 밝기에도 근본적 차이가 발생한다. 그리고 한국의 주거는, 일본에 비하여 내부공간보다는 외부공간의 면적이 많고, 공간을 노래한 우리의 옛 문학작품들 중에서도 그 대상공간이 내부보다는 외부에 많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라고 볼 수도 있다.

3. 외부공간

“일본인에게 있어 건축의 외부란, 그냥 자연이 아니라, 이것도 또한 주의 깊게 가공되고 제어된 자연, 결국은 정원에로 이행되어 가야만 하는 것이다.”³⁵⁾ 반면에 한국은 무위적 자연을 표방하였다. 여백에 있어서도, 일본은

상징을 위한 응축된 상태이고 한국은 비워둠으로써 채움의 효과를 얻고자 함이다. 임석재³⁶⁾는 그러한 한국인의 무위적 사상의 표출경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꼭 필요한 정도 이상의 손질을 삼갔으며 지나치게 깔끔한 마무리를 경계했다. 둘째, 사람의 손맛이

33) 中川武, 전게서, p.96.
 34) 권영길, 전게서, p.171.
 35) 東孝光, 전게서, p.62
 36) 임석재, 전게서, p.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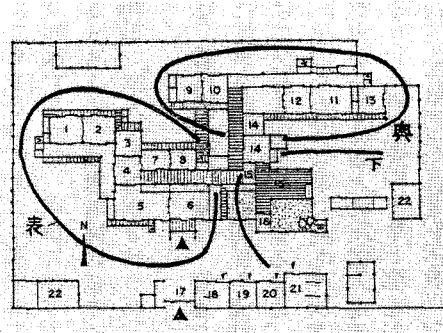


그림 11. 무사주택 사례
 (외부로부터, 表, 下, 奥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西山そどう, 住まい古今學, 彰國社, 1993, p.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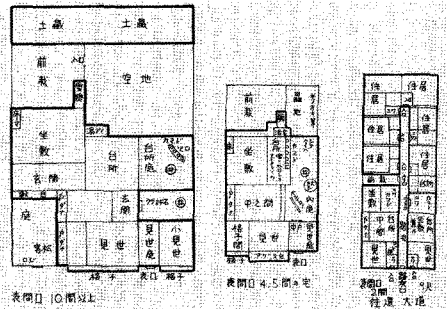


그림 12. 일본 민가의 규모별 공간배치도
 (西山そどう, 住まい古今學, 彰國社, 1993, p.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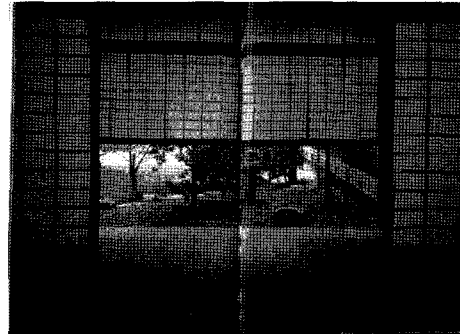


그림 13. 다이토쿠지고호우안보우센
 (大徳寺孤蓬庵忘筌, 中川武, 日本の家, TOTO出版, 2003. pp.92-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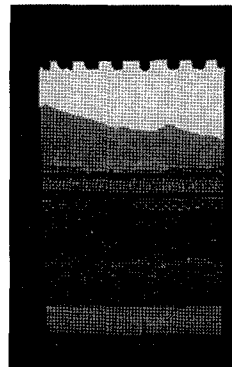


그림 14. 괴산 김기응 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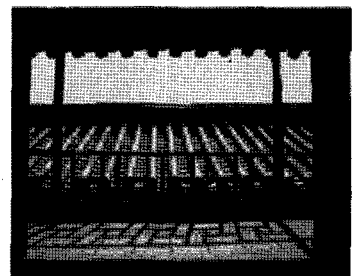


그림 15. 경북 양동마을 향단

나타나되 그것이 노골적이거나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피했다. 이보다 은근히 드러나는 편을 좋아했다. 셋째, 사람의 손맛은 또한 모든 것을 지배해버려서는 안되었다. 사람의 손맛과 함께 재료 본연의 특질이 동시에 드러나도록 했다. 넷째, 동일한 반복은 가급적 피했다. 사각형이라는 기본 모티브는 잘 유지하면서도 이것이 한 가지로 귀결되는 것은 피했다. 다섯째, 자와 같은 정형성을 위한 도구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한 대신 사람의 감각에 많이 의존했다.” 이러한 사실은 양국에 있어 건축행위는 기본적으로 인공적 행위인데, 그 인공적 행위를 한국은 그대로의 자연에 되도록 인공적 행위를 최대한 억제하여 자연의 미에 접근하였고, 일본은 그대로의 자연을 변화의 한 순간으로 재해석하여 자연의미를 되살리려 하였기 때문에 자연히 인공적 행위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하겠다.

또한, “일본의 정원 축조술에 있어, 돌을 세워 광대한 자연, 바다와 산하를 축소하고, 나무나 물은 이 「축소의 구조」에 있어서는 부차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일본 정원의 특색은 필연적으로 돌에 귀결되고 만다. 부분으로 전체를 상징하고 결과로 원인을 보여주는 것이 작은 돌로 대해(大海)를 만들어 내는 기법이다. 물이나 나무를 쓰지 않고 돌과 모래로 산수의 자연을 나타내는 세끼데이(石庭)양식, 즉 카래산스이(枯山水)는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일본 정원의 상징이다.”³⁷⁾ 이러한 것의 대표적인 것으로 교토의 료안지(龍安寺)가 알려져 있는데, 사찰의 경내에 깔려진 모래위에 군데군데 큰 돌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로서 그들은 소우주를 표현한다고 한다<그림 16>.

그리고 외벽과 담에 있어서도 일본은 외벽이 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담이 있다고 해도 그 수는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는 역시 공간의 확장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일본은 외부공간을 내부공간화하면서 확장하여 간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 외벽이 담으로 그 역할이 바뀌게 된다<그림 19, 20>. 하지만, 한국의 담은 나지막하게 그리고 안과 밖을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보다는 다만 경계의 표식으로만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 아마도 “한국인들은 안과 밖을 뚜렷이 나누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다.”³⁸⁾<그림 17>

조요한³⁹⁾은 “울타리 안의 뜰이라고 할 때는 ‘庭園’, 울타리 안의 뜰과 밖의 뜰을 함께 의미할 때는 ‘庭苑’”이라 하고, 한국의 정원미는 울타리의 안뜰과 함께 밖의 뜰을 함께 보는 특색이 있기 때문에 후자로, 일본은 아기가기하게 다름은 그 기교로 인해 전자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그는 “실로 한국정원에서는 자연전망이 좋은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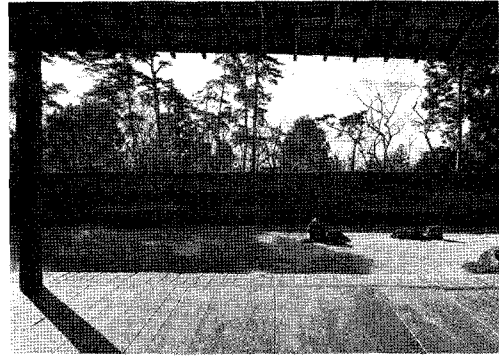


그림 16. 료안지(龍安寺)세끼데이(石庭)
(東 孝光, 日本人の建築空間, 彰國社, 1985, p.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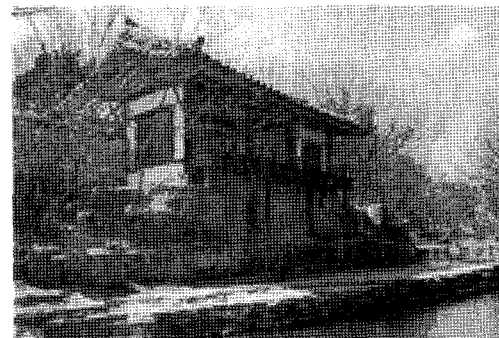


그림 17. 독락당 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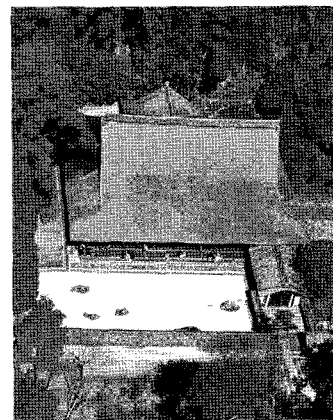


그림 18. 료안지(龍安寺)方丈와 石庭
(東 孝光, 日本人の建築空間, 彰國社, 1985, p.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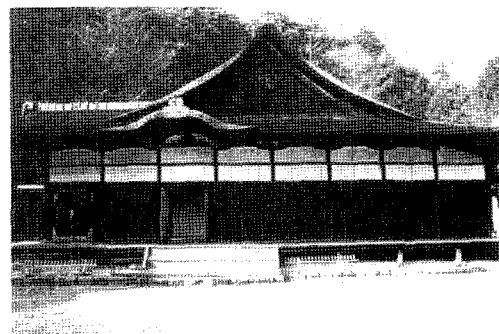


그림 19. 光爭院 客殿

37) 이어령, 전계서, p.137-141.

38) 최준식, 한국미 그 자유분방함의 미학, 효형출판, 2000, pp.262-266

39) 趙要翰, 전계서 p.196.

리에 한 칸 초당을 짓고 그곳에서 내다보는 자리가 “좋은 정원”이기 때문에 한국인은 명당자리를 찾은 것 같다고 하며, 자연의 아름다움만 앞서워서 인공을 가하지 않고, 또 “내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때, 위대한 자연미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일본 전통건축의 외관에 대해 오오카⁴⁰⁾는 처마가 깊고, 큰 지붕을 하고 있는 것이 일본건축의 가장 큰 특징으로 지적하고 “지붕과 축부의 비례가 일본건축 전체의 형태를 규정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깊은 처마의 공간은 최초의 처마에 새로운 처마를 덧대어 만들어 지며 이 처마공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벽으로 기둥으로 내부공간화 되어간다. 그리고 그들은 모코시에 의해 큰 지붕을 바치는 큰 기둥으로 인한 둔탁한 조형에 의한 위기를 탈피하고 섬세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외관 구성체계에 의해 나타난 큰 지붕으로, 일본 전통건축은 장엄하고 강한 이미지로 표현되고<그림 18>, 한국은 마루의 개방적인 공간과 상대적으로 작은 지붕에 의해 부드럽고 여유있는 이미지로 표현된다고 한다.⁴¹⁾

경계를 확실히 구분 짓는 일본 전통건축의 경향은 외부공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권영걸⁴²⁾은 그러한 경향에 대해 “일본의 궁원과 사찰 등의 진입로에는 수평 수직면에서 분명한 작위가 있어 도입부의 영역성을 강화한다. 그러나 한국의 원림이나 사찰의 진입공간은 대부분 특정한 인공요소 없이, 이 길을 쫓아가면 의미 있는 공간에 도달한다는 것을 자연요소만으로 암시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외부공간의 바닥에 있어서도, 일본은 바닥면과 수목에 대한 포장을 자주하는 반면, 한국은 포장을 거의 않고 자연 상태로 두는 경향이 많은데, 이를 이어령은⁴³⁾ “한국문화를 푸는 문화, 일본을 죄는 문화로, 김일근은 일본을 정확함과 공교함으로, 한국을 무기묘의 재미”로 설명한 바 있다.

한편, 한국, 일본 전통건축 공간의 진입부분과 영역성에 관련하여 나타나는 공간 특성에 대하여 권영걸⁴⁴⁾은 다음과 같이 비교하였다. “교토의 료안지(龍安寺) 진입로는 질서정연한 바닥 패턴과 잘 다듬어진 주변의 수목들로 영역성을 강화하고 긴장된 공간이미지를 갖는다. 일본은 고대로부터 토착적인 공간개념을 형성해 왔는데, 그것이 바로 ‘정숙의 미’인 ‘야미(闇)’이다. 그 어두움이라는 뜻 뒤에는 공간 내에 은밀히 감추어져 볼 수 없는 정신적인 장소가 암시되고 있으며, 그것은 다시 ‘가미(神)’로 표현된다. 그들은 이 정신적인 공간으로 유도하는 광정은 긴장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모든 사찰에서부터 궁원(宮苑)에 이르기까지 전정(剪定)을 한 나무는 일체 찾아볼 수 없다. 바닥면도 자연석을 있는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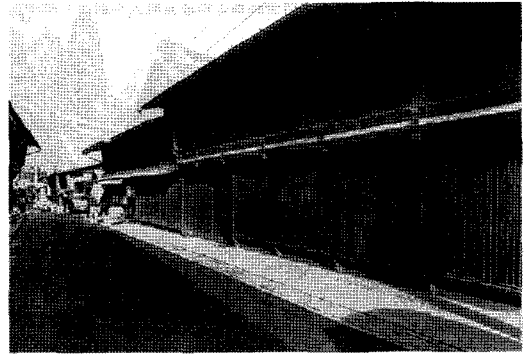


그림 20. 奈良井宿 町屋

대로 이용한 자연스러운 포장으로 긴장을 피한다. 이는 친자연성과 함께 친인간적 표현의 일단으로 이해된다.”

IV. 분석 및 결론

일본은 가외적 인간형으로 사변적인 것보다 행동적인 양명학에 흥미를 갖게 되고⁴⁵⁾ 무사사회는 엄한 계급사회에 모든 사람을 강압적으로 편입시키는 일이 너무나 비인도적으로 행하여졌고, 자기 일에 만족하여 천하제일이 되게끔 하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⁴⁶⁾는 자연의 현상을 변화의 찰나로 파악하고 현실적인 것에 치중하여 전체보다는 부분을 묘사하고 자연을 축소하고 응축시켜 인간의 곁으로 끌어들이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전통건축 공간은 외부공간의 내부공간화가 점점 중대 되어갔고, 미로처럼 연결된 거대화된 내부공간 안에서도 신분에 의한 공간의 구분 즉 경계의 설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반면 한국은 문인층이 득세하여 상대적으로 이상적이고 사변적인 경향을 갖고, 자존형의 인간형으로 도가사상에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자연에 나아가서 자연을 닮으려 하였으며, 무위라는 개념이 그 근본에 위치하였다. 그리고 자연을 닮아가기 위해 한국 전통건축은 자연 속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가급적 외부로 확장되는 경향을 띤다. 그리고 한국 전통건축 공간은 채나눔에 의해, 신분과 성별로 인한 공간의 구분이나 경계의 설정이 벌써 외부공간에서 이루어졌다. 이 사실은 한국은 마을을 먼저 설정한 후 주호를 축조하고, 일본은 주호가 먼저 축조되고 그다음 마을이 이루어지는 현상과 관계가 깊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보면, 한국의 공간은 상대적으로 내부보다는 외부지향적이고, 일본의 공간은 외부보다는 내부지향성이 있다는 판단을 가지게 한다. 이어령⁴⁷⁾은, “일본인이 우찌(内)에서 소또(外)의 공간으로, 즉 「축소」에서 「확대」의 공간에 놓이면 「어떻게 행동해야

40) 大岡 實, 日本建築の意匠と技法, 中央公論美術出版, 1981, p. 111

41) 김동영, 한국·일본전통건축외관의 이미지 특성, 일본건축학회 계획계 논문집, 464호, pp.171-177

42) 권영걸, 전게서, p.165.

43) 권영걸, 전게서, pp.176-177.

44) 권영걸, 전게서, p.164.

45) 김용운, 전게서, 1994, p.189.

46) 김용운, 일본인과 한국인의 의식구조, 한길사, 1985, p.60-61.

47) 이어령, 전게서, p.318.

좋을지 짐작이 가지 않는다」 그리고 「비웃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에의 묘한 심리상태가 된다”고 하였다. 축소 지향의 일본인에게서는 내부공간지향적인 성향이 있음을 설명해주는 말이다. 결국 「안(우찌)으로의 지향」은 「축소」와, 「바깥(소토)으로의 지향」은 「확대」라는 단어와 관련성을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권영걸(2001), 공간디자인 16강, 도서출판 국제.
2. 김광현(1991), 韓國の住宅, 丸善.
3. 김용운(1994), 한국인과 일본인 정착과 정복, 한길사.
4. 김용운(1985), 일본인과 한국인의 의식구조, 한길사.
5. 이어령(1983), 축소지향의 일본인, 갑인출판사.
6. 임석재(2005), 한국전통건축과 동양사상, 북하우스.
7. 최준식(2000), 한국미 그 자유분방함의 미학, 효형출판.
8. 大岡 實(1981), 日本建築の意匠と技法, 中央公論美術出版.
9. 趙要翰(1999), 韓國美의 照明, 열화당.
10. 伊藤ていじ(1988), 日本デザイン, 鹿島出版會.
11. 吉村貞司(1991), 日本美の特質, 鹿島出版會.
12. 西山そぞう(1993), 住まい古今學, 彰國社.
13. 東 孝光(1985), 日本人の建築空間, 彰國社.
14. 小野瀬順(1998), 日本のかたち縁起, 彰國社.
15. 中川武(2003), 日本の家, TOTO出版.
16. 加藤周一 著, 김진만 역(1995) : 일본문화의 숨어 있는 형, 도서출판 소화.
17. 谷崎潤一郎 著, 김지건 옮김(1989): 음예공간예찬, 발언.

(接受: 2005. 10. 7)